

## Conventional Partial Denture의 응용

### 연세치대 한 등후 교수

소수의 치아만이 잔존해 있을때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 발거하고 총의치로 회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잔존 치아를 지대치로 사용하여 국소의치로 회복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때 지대치의 치주 건강 상태, 지지조직 상태 및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대 악과의 관계 및 상대악 치열 및 교합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잔존 치아는 양측성 또는 편측성, 전치부, 구치부 또는 소구치부, 상악 또는 하악등 위치에 따라 지대치 및 잔존 치조제에 가해지는 외력이 상이하므로 지대치와 잔존 치조제에 과부하로 인한 조기 상실과 과다한 골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국소의치 설계시 지대치 위치에 따른 골가 필요하다.

연자는 잔존치아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경우의 국소의치 설계시 고려 사항과 치료중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1. 전치부위
  - 1) 양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 2) 편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2. 구치부위
  - 1) 양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 2) 편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치부위
  - 1) 양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 2) 편측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4. 기타